

The Sonnets에 나타난 시간—영원과 무상

—Shakespeare와 Spenser의 차이—

박 옥 선*

I.

시간의 본질적 의미는 전통적으로 철학의 주제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또한 르네상스 작가들이 지적 감성적 위기감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당연히 의존했던 철학적 근거도 바로 시간의 의미였다. 시간이 계기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간다는 보편적인 인식은 인간의 의식구조와의 맥락에서 파악된 양상으로서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직관하며 미래를 예상하고 기대하는 심리적 현상으로 받아들인 것이 St. Augustine의 시간관¹⁾이다. 이러한 시간 자체의 변화에는 현재란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그것은 과거는 현재에 의하여 소멸되고 현재는 미래에 의하여 소멸될 것이며 미래는 현재속에 존재하지 않지만 머지 않아 현재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필연적인 시간의 속성 때문이다.

사실 시간이란 그것을 과거, 현재, 미래, 시, 계절, 해 등으로 구분할 경우 그것은 심리적 물리적 절대시간이지만 시간의 흐름을 빠르게 혹은 느리게 느끼거나 지나간 시간에 대한 낭비를 절감할 경우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이며 주관적이다. 진실한 수학적 절대시간은 어떠한 외적 요소와 관계없이 같은 속도로 흐른다는 것이 Newton의 시간관²⁾이라면 시간이란 사람에 따라 그 속도가 다른 법이라고 말한 것은 Rosalind를 통하여 주장한 Shakespeare의 시간관³⁾일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신비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이상 시간과 변화에 대한 인식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말로 충분히 설명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의 속성에 대한 Bertrand Russel의 다음과 같은 말은 공감을 얻기에 충분하다.

A few question (about Time) can reduce (us) to hopeless confusion.

* 한국해양대학 교수(영문학 전공)

1) St Augustine, *Confessinos XI*(Penguin Books, 1968), p. 267.

2) Sir Isaac Newton, *Mathematical Principles*, Florian Cajori(Berkeley, 134), p. 6.

3) Shakespeare, *As You Like It*, III. 11. 290-1.

Does the past exist? No. Does the future exist? No. The only the present exists? Yes. But within the present there is no lapse of time? Quite so. Then time does not exist? Oh, I wish you wouldn't be so tiresome.⁴⁾

신화와 제식의 원시시대의 시간이 없는 세계를 벗어나 시간과 역사가 의식의 으뜸가는 대상이 된 이후 인간은 시간의 경과와 그 궁극적인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게 되었다. 그것은 죽음의 순간이나 죽음의 양상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의식으로 순간 순간을 살아야 한다는 불안이다. 따라서 시간의 경과는 시와 철학의 반복되는 주제가 되었던 것이다. A. N. Whitehead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hat "all things flow" is the first vague generalization which the unsystematized, barely analysed, intuition of man has produced. It is the theme of some of the best Hebrew poetry in the Psalms; it appears as one of the first generalizations of Greek philosophy in the form of the saying of Heraclitus; amid the later barbarism of Anglo Saxon thought it reappears in the story of the sparrow fitting through the banquetting hall of the Northumbrian King; and in all stages of civilization its recollection lends its pathos to poetry.⁵⁾

이와같이 시간의 본질은 그리스 형이상학의 근본 문제였으며 성서와 그리스 철학을 혼합한 중세 기독교는 시간을 신의 모방으로서만 설명할 수 있었다. Augustine은 "시간은 무엇인가? 아무도 그 문제를 나에게 묻지 않으며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설명하는 척 한다면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⁶⁾고 했다. 비록 시간의 초월적 영역이 무너진 오늘날의 세속적인 시간은 Kierkegaard 이후의 현대 철학에서도 죽음에 이르는 시간의 거역할 수 없는 흐름에 대한 인생의 일시성이라는 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 Nietzsche와 같은 맥락으로 J. J. Altizer는 현대인의 가장 깊은 곳을 차지한 시간은 신의 죽음에 의해서 생성된 시간⁷⁾이라 했지만 시간에 대한 관심이 다른

4) Bertrand Russel, *Human Knowledge*(New York: Simond and Schuster, 1948), p. 267.

5) A. N.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Cambridge, 1929), p. 295.

6) *Confessions*, IV. xiii.

7) J. J. Altizer, *Mircea Eliade and the Dialectic of the Sacred*(Philadelphia, 1963), p. 63.

어떤 시대보다 더 큰 시대가 있다면 바로 16세기와 17세기 초의 영국 르네상스 시대였다. 엘리자베스와 자코빈 문학은 시간의 본질적 의미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었다. 그리고 점진적인 것이기는 해도 심오한 지적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물론 시간은 신이 만든 것이며 신의 섭리에 의해서 계속된다는 중세의 종교적 전통이 시간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문제 해결에 표면상의 동질성을 보이고 있고 전통에 대한 옹호가 여전히 강력했었다는 것은 16세기의 교리와 설교에서 알 수 있듯이 신의 섭리 원리는 가장 으뜸가는 옹호론⁸⁾이었다는 점에서 증명되고 있다. 시간을 만들고 예정된 목표 지점까지 시간을 인도하는 것은 신이라는 전통적 기독교 원리는 여전히 16세기의 지배적인 사상이었으며 특히 Calvin의 섭리 원리는 이러한 사상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었지만 이러한 지적 확일성이 16세기에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한 변화가 엘리자베스와 자코빈 문학에 나타난 것은 명백하다. J. Huizinga는 중세 후기 만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한 시대는 없었으며 *memento mori*는 생활 전반에 퍼져 있었다고 했고,⁹⁾ Huizinga의 말대로 14~15세기를 사람들의 마음 속에 죽음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한 시대였다고 한다면 16세기와 17세기 초는 Tillich¹⁰⁾의 주장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시간에 대한 의식이 팽배했던 시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간의 파괴성은 엘리자베스 시의 상투어였고 시간과 죽음은 궁극적인 심판자로 빈번하게 연상되었다. 그러나 시간을 영원한 신의 세계로 향한 천로역정으로 본 Aquinas와, 이미 사라진 무한한 과거와, 아직은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무한한 미래를 구분하는 현재의 흐름을 과학적 연계성으로 설명한 Newton 사이에는 분명히 시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으며 이 두 시대 사이의 과도기였던 르네상스의 시간관의 변화는 당연한 귀결로 보아야 할 것이며 Shakespeare 시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시간은 종교와 철학의 문제만이 아니다. 시간의 본질적인 의미는 종교와 철학에서 다루는 추상적인 문제이겠지만 시간이란 인간의 내적 자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한 늙는다는 것, 욕망이나 이상이 성취되거나 좌절한다는 것등의 인간 경험이 모두 일시성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정면으로 맞서 그 의미를 파헤쳐 발견하려는 역할은 철학자만큼이나 시인에게도 주어져 있는 것이다. 다만 시인은 그것을 추상화 하거나 객관화 하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비록 Shakespeare의 *King Lear*와 *Sonnets*에서

8) Roy W. Battenhouse, *Marlowe's Tamburlaine*(Nashville, 1941), p. 86 ; cf. Wilbur Sanders, *The Dramatist and the Received Idea*(Cambridge, 1968), pp. 110~117.

9) J. Huizinga, *The Waning of the Middle Ages*(Harmondsworth, 1955), p. 140.

10) Paul Tillich, *The Courage to Be*(Harmondsworth, 1962), p. 65.

추상적인 지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성장과 변화와 퇴색과 죽음이라는 비추상적인 인간적 현실에 대한 깊은 상상력을 집중시킨 시인의 추상이지 결코 종교와 철학의 추상은 아니다.

엘리자베스와 자코빈 문학에 나타난 시간은 서로 관련된 두가지 면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그 하나는 영원과 반대 개념으로서 철학자들이 추상적인 범주에서 생각하거나 경험의 연속으로서 느끼는 시간이며, 또 다른 하나는 순간순간의 느낌으로서 Shakespeare의 Sonnet 60에서 볼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무상과 변화로서의 시간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간과 더불어 변한다는 경험적 인식과 사랑하는 것을 영원히 존속시키고자하는 영원과의 끊임없는 갈등은 영원에 대한 확신을 함으로써만 변화의 힘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역설이 성립될 만큼 Shakespeare는 가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불변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변증법적 전개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 Shakespeare만큼 영원과 무상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시인도 없었으며 Shakespeare만큼 당시의 새로운 시간관에 대한 지적 반응을 보인 작가도 없었다. 또한 영국 르네상스의 시극 이외의 순수시 중에서 Shakespeare의 소넛은 특히 이 새로운 시간관과 관련된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표면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점은 Ovid의 고전적 전통과 Spenser의 중세 기독교적 전통에 영국 르네상스 후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시간 철학을 접목시켰다는 차원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시간에 관한 고전적 사상과 중세적 종교관과 르네상스의 사상적 배경을 검토하고 이러한 전통이 Shakespeare의 시간관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Shakespeare가 그의 시간관을 소넛에서 어떻게 나타냈는가를 주로 Spenser와 Shakespeare를 비교하면서 검토하고자 한다.

II.

르네상스가 상속받은 외관상 획일적인 시간관은 모든 획일성이 그러하듯 실은 여러가지 요소가 뒤섞여 있었다.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요소는 그리스 철학의 전통과 구약성서였다. 그리고 철학은 시간의 궁극적인 의미를 구명하지 않았다. 그들은 인간이 얽매여 있는 끝없이 순환하는 무의미한 시간 속에서 진실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았다. Heraclitus는 시간의 일시성에 관심을 가졌으며 Plato와 Aristotle에게 있어서도 시간과 변화는 핵심적인 문제였지만 Plato의 경우 진리는 불완전한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데아에 있다고 했고¹¹⁾ Aristotle도 제 일 원인소(The First Cause)이며 제 일 동력소(The Prime Mo-

11) Plato, *Timaeus* 37. in *Great Books of the Western World* 7; Plato(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52), p. 450.

ver)는 시간 밖에 있다고 했다.¹²⁾

이와 같이 시간을 진리의 하위 범주에서 고찰했던 그리스 철학의 시간을 영원의 불완전한 발산물로 본 Plotinus에 의해서 시간의 본질에 대한 형이상학적 전통이 없는 기독교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 기독교의 시간 개념은 기독교의 신학적 우주관과 그리스의 철학적 형이상학이 뒤섞여 있었다. 4복음서로부터 Aquinas에 이르기까지의 기독교 철학은 그리스의 이성과 혼합되었고 Marcus Aurelius의 스토익 운명론에서 강력히 부각되는 역사의 순환성과 Eusebius나 Augustine이 주장하는 신의 도시로 가는 역사의 필연성이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Confessions*와 *City of God*에서 나타난 Augustine의 시간관은 16~17세기 시간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Augustine에 의하면 시간을 만들고 시간을 지배하는 것은 신이며 인간이 겪는 무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원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비록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세 차원을 현재로 통합시키고 과거는 기억 속에 남기고 미래는 예상 속에 존재한다고 하지만 Augustine이 역설하는 것은 시간이란 인간의 구원이나 저주의 매체이고 영원을 인간에게 연결시키는 도구로서의 시간과 영원의 차이이며 또한 신의 존재였다. 따라서 인간은 시간 속에서 불완전하지만 신은 영원 속에서 모든 것을 동시에 성찰한다는 것이었다. Augustine의 이와 같은 시간관은 천년을 두고 계속되면서 인간이 겪는 무상을 신의 초월적 영원의 맥락속에서 해결했었다.

시간과 영원의 관계를 중세 사상으로 설명한 St. Thomas Aquinas는 지상의 모든 변화를 관찰하는 신의 존재를 부동의 원동력으로 입증하려 했다. 시간은 운동을 측정하지만 영원은 존재를 측정하며 신 만이 불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신은 시간의 질서위에 존재하며 영원의 정점에서 내려다 보는 신의 시각은 시간의 흐름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¹³⁾ 그러나 Aquinas의 철학은 Calvin에 의해서 수정되고 Aquinas와 Calvin의 차이점은 16세기라는 전환기를 통하여 영국의 지적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Aquinas는 신의 섭리를 예정된 종말에 이르는 만물의 질서 계획으로 보고 개인적인 인과율을 신에게만 귀속시키지 않았다.¹⁴⁾ Aquinas의 섭리는 일반적 원칙이었으며 개별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에 반해서 Calvin은 이름 뿐인 신을 거부하고 실천하는 신,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신의 뜻을 주장했다.¹⁵⁾ 따라서 시간은 우주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12) Aristotile, *Physics*, 218b, in *Great Books of the Western World* 8, 9, Aristotle (Chicago : Chicago University Press, 1952), p. 298. *et passim*.

13) Thomas Aquinas, *The Summa Theologica*, trans. English Dominican Fathers (London, 1911~22), I. ii. 3.

14) *Ibid.*, I. xxii. 3.

15) John Calvin, *Institutes*, trans. John Allen, 2 vols, (philadelphia, 1936), I. xvi.

신이 고르게 펼치는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신의 뜻을 묵시적으로 나타내는 불연속체로 그 본질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¹⁶⁾ Aquinas의 시간 속에서는 어떤 자연발생적인 우발성을 인정해도 Calvin의 시간 속에서는 나무 한 그루가 넘어져도 신의 뜻에 의한 것이지 우발적인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¹⁷⁾

Calvin의 확신은 인간 존재의 순간 순간은 신에 의존하며 인간이 의식하는 양든 간에 인간이 살아 있는 한 모든 순간은 신의 개별적인 명령에 의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살아 있는 동안 인간의 역할은 신을 찬미하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신의 섭리에 대한 Calvin파의 찬미의 원리와 함께 시간에 대한 시각도 달라졌고 무상에 대한 의식은 깊어졌으며 종교적 관습이 서서히 세속화되면서 인생관의 변화를 가져왔다. 16세기 후반은 불안한 시대였으며 John Donne은 이 시대를 “늑스 시대”¹⁸⁾라고 했다. 천문학의 발달은 정확한 시간 측정을 필요하게 했다. Brahe와 Galileo가 16세기에 널리 보급되었던 시계를 시간 측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될 무렵에는 이미 영원한 인간행동의 척도도 아니며 좇점일 수 없게 되었다. 시간은 영원에 의존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단절된 순간의 연결로 구성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Copernicus, Kepler, Galileo의 천문학으로 Ptolemy의 체제가 무너진 이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확실한 것은 가장 의심스러운 것이 되었으며 인간에게만 적용되었던 성장, 노쇠, 죽음의 변화가 천체에도 적용됨에 따라 종말 의식과 함께 변화와 무상이 일상생활을 지배하게 되었으며 시간과 무상의 주제는 엘리자베스, 자코빈 문학의 한 특징이 되었다.

이제 시간은 영원한 세계라는 차원이 아닌 세속적 차원에서 고찰되었다. Montaigne는 그의 *Essays*에서 시간의 극복을 세속적 차원에서 다루었다. 그가 반복해서 제기한 문제는 어떻게 죽는가를 배우는 것과 어떻게 시간을 아껴쓰는가 하는 것이었다. 인생이 짧은 것이라면 그것을 보다 더 깊이 있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¹⁹⁾ 이러한 태도는 *carpe diem*을 연상하지만 중요한 것은 르네상스 시대의 많은 사상가들이 결국은 인간의 생명을 궁극적으로 재판하는 것은 신의 섭리라는 전통적인 견해와 대립된 우주의 자율적인 힘으로서의 운명이라는 고전적 세속주의에서 시간과 무상을 해결하려 했다는 점이다. 르네상스 寓意圖(emblem)에 나타나는 *Fortuna*는 *Occasion*이나 *Opportunity*와 같은 것으로 앞 머리에만 긴 머리 카락이 있는 여인이 수레 위에 그려져 있으며 인간의 운명을 자의적으로 조종하는 그녀는 신의 섭리와는 전혀

16) *Ibid.*, I. xvi. 2.

17) Aquinas, *op. cit.*, I. xix. 8; Calvin, *op. cit.*, I. xvi. 4~6.

18) John Donne, “Satire V”, 35.

19) Michel Montaigne, *Essays*, trans, John Florio, 3 vols, (London: Dent, 1965), pp. 380~381.

관계 없는 존재였다. 이 운명은 인간의 우발적인 불행을 신의 섭리가 아닌 운명의 회룡 탓으로 돌리게 되었고 일부에서는 그래도 신의 뜻이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것이라고 했지만 Calvin과의 거센 항의를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William R. Elton이 지적하듯이 16세기 말에는 전통 원리에 대한 회의적 태도는 그 극에 달했다.²⁰⁾

영원과 우연, 섭리와 운명에 대한 선택은 결국 시간의 의미에 관한 핵심적인 문제였다. 신은 그 신비스러운 종말에 이르기 까지 시간을 지배하는가 아니면 무상이 신의 위치를 대신하는가, 만일 시간과 무상이 자율적인 힘으로 인간을 지배한다면 불변의 가치를 어디에서 발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Wilbur Sanders는 이 문제에 대한 Shakespeare의 태도를 우주의 도덕성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Shakespeare는 Calvin과와는 입장이 다른 오히려 Hooker의 자연법 차원에 가까운 자연 섭리로 자연 영역의 논리를 초자연의 목적에 관련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²¹⁾ 그러나 *Richard III*, *Richard II*, *Macbeth*와는 달리 *King Lear*에 나타난 시간과 섭리의 관계는 Sanders가 지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발전적이고 개혁적이다.

이러한 개혁적 차원에서 16세기 영국에 큰 영향을 준 Giordano Bruno는 고전적 사상과 함께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시간, 무상, 섭리를 다루었다. 그는 신을 가변적인 것으로 보고 신도 우주의 모든 것과 같이 운명을 겪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²²⁾ 그는 신의 존재를 Aquinas처럼 우주 밖에 두지 않았으며 Aristotle처럼 신을 제 일 동력소로 보지 않았다. 무한한 우주와 신의 관계를 범신론적 차원에서 해석했던 그에게 섭리란 어떤 의미에서 운명과 동일한 것이며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인간의 분별력에 비친 경험과 같은 것이었다.²³⁾ 무한을 유한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시간의 초월적 영역을 인정하지 않으며 섭리를 일시적 사건에 대한 인간의 결단과 분별력을 표출한 것으로 본 Bruno의 사상은 전통적인 종교관과 우주관을 거의 다 부정하는 혁신적인 사상이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궁극적인 가치를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발견하려는 시도였으며 무상에 대한 르네상스의 두려움과 체념이라는 전형적인 비판론을 버리고 무상을 기꺼이 받아들인 긍정적인 것이었다.

무상에 대한 이와같은 Bruno의 사상은 만물유전의 Lucretius의 사상과 같은 것이지만 변화하는 세계에서 변화하지 않는 육체나 물질이나 존재가 있다면 그곳에는 기쁨도 선행도 없다고 말한²⁴⁾ 그는 진리를 고정된 초월적 신성에 두

20) William R. Elton, *King Lear and the Gods*(San Marino, 1966), p. 17.

21) W. Sanders, *op. cit.*, pp. 117, 119.

22) G. Bruno, *The Expulsion of the Triumphant Beast*, trans. Arthur D. Imetri (New Brunswick, 1964), Explanatory Epistle, p. 75.

23) *Ibid.*, II. i, pp. 141~43.

24) *Ibid.*, I. i, p. 89.

지 않고 시간 속에서의 경험에 두었기 때문에 가장 충실한 사람은 유한 속에 무한을 보며 순간 속에 영원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순간이란 시간의 기본 단위이며 순간이 없으면 시간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순간 속에는 영원의 본질과 실체가 있으며 진리도 시간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 있다는 논리는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현명한 사람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Memory of a well-employed span of life, shall see to it that old age
and death take me before my mind is deranged. ... Fear of losing glory
acquired in life, will make my old age and my death not bitter but dear
and longed for.²⁵⁾

인간이란 변화하는 세계의 일부이며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나 영원한 세계로의 전이가 아니라 우주 속에서의 변형이며 그 본질은 시간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는다. 인간은 변화하기 때문에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으며 무상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라는 확신에 이르게된 Bruno의 사상은 16~17세기 영국에 혁신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시간의 세속주의적 해석을 Shakespeare의 지성이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특히 그의 소넷에서 그것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살펴 보기 위해서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은 중세의 시간관이다. 그 이유는 중세의 종교적 전통이 강조하는 영원과 무상의 대조는 엘리자베스 문학 전반에 걸쳐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상은 불안정, 변화, 퇴색, 소멸을 의미했다. Spenser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What man that sees the ever-whirling wheele
Of *Change*, the which all mortall things doth sway,
But that thereby doth find, and plainly feele,
How *mutability* in them doth play
Her cruelle sports, to many mens decay? ²⁶⁾

또한 이와 같은 중세와 르네상스의 연계와 함께 분명한 것은 Horace나 Ovid에서 찾을 수 있는 시간에 관한 또 하나의 전통, 즉 고전적 시간관이다. 지상의 행복과 사랑이 꽃이 시들고 계절이 바뀌듯 언젠가는 사라져 버리기

25) *Ibid.*, II, iii, p. 194.

26) Edmund Spenser, *The Faerie Queene*, IV. 1.

때문에 Daniel같은 르네상스 소넷 시인이 즐겨 찾았던 현실원리의 *carpe diem* 주제는 Ovid의 영향을 직접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Ovid가 *Metamorphoses*에서 영탄조로 읊은 다음 구절에서 현실원리의 전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A rolling stream—and streams can never stay,
Nor lightfoot hours. As wave is driven by wave
And each, pursued, pursues the wave ahead,
So time flies on and follows, flies and follows,
Always, for ever new. What was before
Is left behind; what never was is now;
And every passing moment is renewed.²⁷⁾

Shakespeare가 Sonnet 60에서 통찰하고 있는 시간의 탐식성과 유동성은 Ovid에서 차용된 것이지만 J. W. Lever의 지적대로 Shakespeare는 이 진부한 이미지들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고 있다.²⁸⁾

시간과 변화에 대한 Spenser와 Shakespeare의 이미지리 비교는 Shakespeare의 시간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Spenser는 시간의 흐름을 화가의 눈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의 이미지는 유동적이라기보다 상징적이다. *Daphnida*에서 무상한 세상은 “Mill wheel”에 비유되고 있다.

...a Mill wheele, in midst of miserie,
Driven with streames of wretchednesse and woe,
That dying lives, and living still does dye.²⁹⁾

그는 일시적인 변화를 긴 행렬의 한 부분으로 취급한다. 그리고 그것을 정물화의 이미지리로 묘사한다. 그는 일시적인 변화를 어떤 질서의 틀 속에 박혀 있게 하기 위하여 우의도 형태를 강조한다.

반면에 Shakespeare는 유동적이고 순간적인 이미지리로 시간의 흐름과 인생의 거역할 수 없는 그러나 본질적인 관계를 묘사함으로써 자연 변화의 소용돌이와 용해를, 그리고 때로는 역설적인 불안과 변화의 인상을 깊게 남긴다. 60에서 Shakespeare는 무상의 결정론을 비상한 숨씨로 그리고 있다.

27) Ovid, *Metamorphoses*, trans. by A. D. Melville(Oxford :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p. 357.

28) J. W. Lever. *The Elizabethan Love Sonnet*,(London : Methuen, 1956), p. 252.

29) Spenser, *Daphnida*, *Works*, p. 532.

Like as the waves make towards the pebbled shore,
 So do our minutes hasten to their end ;
 Each changing place with that which goes before,
 In sequent toil all forwards do contend. (60 : 1-4)

“조약들 깔린 해변”으로 파도는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독립적인 의지작용으로 “자리를 바꾸어 가며 앞을 다투어 밀린다”는 파도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주는 구체적인 인상을 추상적인 시간의 흐름에 대한 감각을 형성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이 이미지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한 순간이 다음 순간으로 바뀌는 것이며 또한 파도의 쉼 없는 반복이 이 세상 만물의 생성과 소멸의 되풀이 되는 순환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Shakespeare는 우주를 인간의 동기의 면에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몰과 일출의 은유가 왕의 이미지와 연관되어 있다.

Nativity, once in the main of light,
 Crawls to maturity, wherewith being crowned,
 Crooked eclipses 'gaist his glory fight,
 And time that gave doth now his gift confound.
 Time doth transfix the flourish set on youth,
 And delves the parallels in beauty's brow,
 Feeds on the rarities of nature's truth,
 And nothing stands but for his scythe to mow.(60 : 5-12)

5행의 main은 행성이 상승하고 있을 때 빛이 비치는 범위의 바다와 그 이미지가 연결되어 있다. 반면에 crawls는 어린 아기의 탄생을 연상시키고, 마루위를 기어 다니는 아기와 하늘에 솟아 오르는 태양이 겹쳐서 나타내는 중첩된 이미지 속에는 세계적인, 나아가서 우주적인 이미지의 혼합이 있다.³⁰⁾ 이것은 남성의 후광과 자부심이라는 glory의 이중의 의미에 있어서도 유지되고 있다.

crooked는 “악의를 품은”이라는 비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기의 탄생에 불길하게 작용하는 별의 영향력을 함축하는 점성술적 비유이며, 그런가 하면 낮처럼 휘어진 이지러진 태양의 회화적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 이 모두가 시간, 즉 추수꾼의 이미지와 결부되고, 드디어는 시간이 언젠가는 추수를 위해 낮으로 배어버릴 준비를 하는 시간의 작용을 인식하게 한다.

30) Stephen Booth, ed., *Shakespeare's Sonnets*(Hew Haven and London : Yale University Press, 1977), p. 135.

이와 반대로 10행의 parallels는 다시 점성술적 이미지를 일깨우고 있는데 이것은 지구의(地球儀) 위의 위도를 나타내는 선을 연상하게 하고 flourish는 과일나무의 꽃이라는 원래의 의미를 지닌 반면에 crowned에 부수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crown은 나무의 잎이 우거진 윗 부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flourish의 지배적인 의미는 활력, 한창시절, 원숙 등의 비유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³¹⁾ “청춘에게 주어진 화관을 변모시키는” 시간은 추수꾼의 낮이며 그 낮에 당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Lever는 제2 quatrain의 이미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One might risk a scientific analogy and say that all three images, of child, sun, and king, are drawn from their customary orbits to inhabit a single space-time continuum. Nativity, a sun rising over the horizon, crawls an infant up the path of the sky ; at its noontide zenith of maturity it is crowned king ; whereupon the eclipses that stain both moon and sun, ‘crooked’ by transferred epithet from the shape they impose, also personified with the infanticidal malice of a Richard Crookback, fight like usurpers against a glory denoting at once the sun’s light and the king’s majesty.³²⁾

일출과 아기의 탄생이 동일 이미지로 연결되어 있고 하늘 높이 솟아 오르는 해와 기어다니는 아기를 동일한 이미지로 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오의 천정(zenith), 성숙한 인간, 왕관을 쓴 왕을 결부시키고 있다.

*The Shepheardes Calender*에서 Spenser는 가을을 묘사하면서 본질적으로 암시한다기 보다는 시각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의 메타포 구성은 긴장으로 억제되고 있고 그래서 독자와의 거리가 생긴다. 반면에 Shakespeare는 73에서 비록 처음에는 정적이고 우의도적 이미지로 출발하지만 그것은 곧 실체가 없는 환영의 이미지로 바뀌고 단순한 시각적 차원을 탈피한다.

That time of year thou mayst in me behold
When yellow leaves, of none, of few, do hang
Upon those boughs which shake against the cold,
Bare ruin’d choirs where late the sweet birds sang.
In me thou seest the twilight of such day,

31) M. M. Mahood, *Shakespeare’s Wordplay*(London : methuen & Co. Ltd., 1957), p. 96.

32) J. W. Lever, op. cit., p. 253.

As after sunset fadeth in the west,
 Which by and by black night doth take away,
 Death's second self, that seals up all in rest,
 In me thou seest the glowing of such fire.
 That on the ashes of his youth doth lie,
 As the death bed whereon it must expire,
 Consumed with that which it was nourished by.
 This thou perceiv'st, which makes thy love more strong,
 To love that well which thou must leave ere long. (73)

이것은 일시적인 불확실성과 파괴의 필연적인, 그러나 자의적인 힘을 느끼게 하는 소넷 전반에 나타나는 시간관의 주류로서 이 소넷에서는 피할 수 없는 상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시인의 개인적 심리 상태나 기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독자의 상상을 통해 공감되도록 객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시다. 변화, 쇠퇴(衰敗), 죽음등을 향한 삶의 진행에 대해서 비록 시인 자신의 모습을 통해 이야기 하고 있지만 청년으로 하여금 그러한 삶의 과정을 자기의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 “내가 늙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대도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경고에 가까운 설득을 통해 청년이 막연히 느끼고 있던 것을 명확한 사실로서 인식시키기 위한 형식을 창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자의 상상의 스크린에 비치는 세 개의 장면처럼 각 quatrain은 이러한 노쇠와 상실과 죽음의 광경을 객관화하고 있다. 즉 세개의 서로 엇갈린 방법으로 시인의 노쇠현상을 묘사하고 있으면서 논리적으로는 반복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잎이 떨어진 나뭇가지, 황폐된 성가대석, 황혼, 타다 남은 불빛 등등은 모두 삶의 과정에 있어서의 필연적 결과인 소멸 현상과 직결되어 있다. 세개의 각기 다른 장면이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Shakespeare 소넷에 있어서 3개 quatrain은 모두 동일한 진술을 위해 쓰이고 있지만은 각기 다른 메타포를 이용해서 단일 주제내의 변화를 피하고 있는데, 이 시에서도 시인이 늙어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이미저리는 yellow leaves, twilight, (dying) fire등으로 각기 다르게 제시되지만 그것은 하나의 복합적인 이미저리를 노린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하게 되는 것은 4행의 “bare ruin'd choirs”이다. Ransom과 Empson은 특히 이 구절의 이미저리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는데 Empson은 이 소넷에서 나뭇가지와 성가대석을 동격으로 처리, 비유하고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Because ruined monastery choirs are places in which to sing, because they involve sitting in a row, because they are made of wood, are carved into knots and so forth, because they used to be surrounded by a sheltering building crystallised out of the likeness of a forest, and coloured with stained glass and painting like flowers and leaves, because they are now abandoned by all but the grey walls coloured like the skies of winter, because the cold and narcissistic charm suggested by choir-boys suits well with Shakespeare's feeling for the object of the Sonnets, and for various sociological and historical reasons (the Protestant destruction of monasteries; fear for Puritanism), which it would be hard now to trace out in their proportions; these reasons, and many more relating the simile to its place in the Sonnet, must all combine to give the line its beauty, and there is a sort of ambiguity in not knowing which of them to hold most clearly in mind.³³⁾

Empson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 시에 사용된 어휘나 구절이 함축하는 바를 독자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일반 독자들이 그런 분석력을 갖고 시를 읽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독자의 시 감상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가 하는 점에 입각해서 Empson을 배우기보다는 그가 언급하고 있는 것 중에서 무엇에 유의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Ransom의 견해를 들어보자.

I see perhaps the soiled wood and broken stones, both intricately, of an edifice whose roof has come off, once a sacred edifice; and it is plumped down into Shakespeare's discourse very oddly, like any good metaphor, but not with so little excuse as to irritate me, or even make me suspicious. It may be a very commonplace image, by some standards, but it has in its unexpectedness wonderful depths of meaning because they are not at all in the direction of the business suiting its tenor but tangential to it: depths indeed, and this is the important thing, that are somewhat like forbidden ground, if we are to make sober progress in the logic. ... So, I think, a reader's imagination works with the presented texture of a poem; with its heterogeneity always, with its ambiguity if

33) William Empson, *Seven Types of Ambiguity* (Penguin Books, 1961), pp. 2~3.

it must. Heterogeneity is the specific, the characteristic mode of poetry.³⁴⁾

어떤 특정 이미저리에 집중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차근차근 진행되어가는 논리에 대해서는 모험적인 시도일지 모르지만 시 전체의 구조와 관련해서 큰 단위의 이미저리에 부수적으로 이해하면 그 특정 이미저리는 전체의 이미저리에 어떤 특별한 깊이와 생동감을 주게 되는 것이다. Ransom은 이 점을 통찰하고 있다.

논리적 구조를 위해서는 위험스럽게 보이는 이미저리가 미적 구조를 위해서는 독자의 상상과정에 자극을 주는 시의 이류혼교(heterogeneity)로서 기능하고 있다.

제1 quatrain을 통해 우리는 상상속에서 이미 몇개 남아 있거나 아예 없거나 한 나무를 보게 되고 다시 가지들이 탁탁 소리내며 추위에 떠는 모습을 보게 된다. Booth는 나무 가지의 이미지에 대해서 사람의 양 팔을 비유하고 혈벗은 나무가지와 노인의 팔이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으로 분석한다.³⁵⁾ “shake against the cold”의 /k/ /g/음의 조화는 이 가지들의 떨림을 소리로 반영하고 있다. “전에는 새들이 즐겁게 노래하던 황폐한 성가대석”은 복합적 이미지로 시적 오케스트라를 이루고 있다. “sweet birds”는 흔들리는 가지 위에 앉은 예쁜 새의 가시적 모습과 노래의 달콤함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ruin’d choirs”도 이와 마찬가지로 가시적 이미지는 물론 성가대의 노래소리를 동시에 연상하게 하는 이중효과 때문에 더욱 주목을 끄는 이미지다. 시간의식은 ruin’d에서 더욱 강렬하게 나타나 있다. 성가대의 황폐화는 나뭇가지의 혈벗음처럼 석달 남짓한 한 계절의 작용인 것만은 아니다.

4행의 choir는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교회에 설치된 성가대 혹은 수도원이라는 뜻으로 읽으면 경건, 은둔, 헌신등을 함축하고, 노래하는 새들의 안식처라는 의미로 읽으면 쾌활함을 암시하게 되지만 바로 앞의 형용사 bare ruined에 의해서 황량함, 쇠퇴, 적막감등을 암시함으로써 쾌활함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이러한 묘사는 나무의 이미지들을 빌어서 시인의 심중을 나타낸 것으로서 특히 4행은 시인에게 있어서 가장 쓰라린 후회, 가장 큰 상실감을 나타내고 있다.

“황폐한 성가대석”에서 느끼는 상실감은 지난 계절의 나무가지에서 노래하던 새들의 기억 때문에 더욱 강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1 quatrain은 이와 같이 그 긴밀성에 있어서 압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Mizener는 성가대석과 나무가지의 이미지를 성가대원과 새의 이미지로 용

34) John Crowe Ransom, *The New Criticism* (Norfolk, Conn, 1941), pp. 129~30.

35) Stephen Booth(1969), *op. cit.*, p. 126.

합시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The fusion is brought about by Shakespeare's slurring up from boughs to choirs and then down again. He gets up to choirs with the adjectival sequence "bare ruin'd": "bare" modifies, primarily, boughs, and it is only through the diplomatic mediation of "ruin'd", primarily the modifier of choirs, that "bare" becomes intimate with choirs. He gets down again to boughs with the pun on "sweet birds"; in the phrase's secondary, euphemistic sense these are the choisters, but in its primary sense they are the quondam occupants of the now shivering boughs.³⁶⁾

제2 quatrain은 제1 quatrain보다 단순 명료하다. 어둠이 다가오는 낮의 이미지가 기술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일몰의 아름다운 노을을 연상하기보다 얼마 남지않은 낮의 빛에 몰두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황혼은 단순히 하루가 저문다는 개념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인간, 모든 사물, 의식, 모든 다른 빛을 포괄적으로 의식하면서 하루의 한 순간인 일몰에서 대단히 포괄적인 의미의 소멸로 향해 의식을 이동시킨다. 그것은 결국 죽음으로 연결된다.

제1 quatrain이 심리적인 경쾌감의 소멸을 나타낸다면 2 quatrain은 빛의 소멸을 나타내고 있는데 처음에는 일몰, 그 다음에는 황혼을 묘사한다. 밤은 황혼을 물어버리고 "모든 것을 안식속에 유패시킨다." "seals"는 무덤속에 갇힘을, "rest"는 영면을 의미한다. 따라서 "seals up all in rest"는 사후에 관 뚜껑을 닫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Stephen Booth는 7, 8행의 심상을 "a dimly perceptible metaphor of a child taken off to sleep by black night a sinister nursery maid"³⁷⁾라고 하면서 역시 죽음과 결부시키고 있다. 그러나 밤은 "죽음의 제2의 자아"에 불과하므로 여기서는 죽음의 환상은 있지만 죽음의 절정은 잇따라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밤과 죽음의 이미지 연결에 대한 Booth의 견해를 들어 보자.

Death's second self suggests the traditional epithet for sleep "the younger brother of Death." The suggestion of sleep inherent in the epithet is then confirmed by the rest of the line: that seals up all in rest. Night and sleep are closely related concepts, and there is nothing startling about the mention of one leading to the mention of the other. Here, ho-

36) Mizener, *op. cit.*, p. 732.

37) Stephen Booth(1977), *op. cit.*, p. 260.

wever, the reader's mind must act upon the lines, adjusting its understanding as the idea of the night fuses into, and at last is almost lost in, the idea of sleep, which, in *lie* and *deathbed*, is still dimly present in the next quatrain.³⁸⁾

제3 quatrain은 불 내지 삶이 소멸해 버리는 이미지와 이 소멸과정의 역설적인 본질에 대한 독자의 이해에 의존하고 있다. 밝게 탄다는 것은 완전 연소를 뜻한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충격과 더불어 위협적인 인식을 하게 한다. 삶은 양육(nourish'd)되는 동시에 소모된다. 불이 연료를 먹고 불길을 키움과 동시에 연소되는 과정은 삶의 과정과 일치되어 있다. 12행에서도 계속 이러한 과정의 추상적 표현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불의 이미지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강조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계속 불의 모든 과정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 제3 quatrain은 1, 2 quatrain이 지니지 못하는 풍부한 사고를 수반하고 있다. “glowing”의 완전 연소를 함축하는 뿔뿔 타는 불에서 바지직거리며 타는 등걸불로 변화하는 과정에 우리의 상상을 집중케 한다. 인간의 삶의 과정과 이러한 불의 연소과정을 우리는 전율속에서 동시에 연상하게 된다. 이 불의 신비스런 이미지로 인해 삶의 진행과정을 생생하고 깊이 있게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제2 quatrain에 함축되어 있는 장례식의 이미지가 “deathbed”로서 표면에 드러난다. 이것은 물론 꺼져가는 불의 부수적인 이미지다. 청춘의 생동력은 그 지속적인 생명의 불을 질식시키고 재로 화하고 만다. 말하자면 정력의 쇠퇴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 남은 현재의 활력은 단지 하나의 열정에 지나지 않을 뿐, 정력적인 과거의 삶, 사랑을 나타내는 유일한 증거는 열정의 불꽃이 꺼져버린 채 남아 있는 재다. 이 재는 마지막 생애 미련을 두고, 남아 있는 희미한 빛을 발한다. 이미 종말은 눈에 띄게 현저해진다.

Couplet의 “this”는 다가오는 종말에 대한 암시를 환기시키면서 친구가 그들의 이별이 임박했음을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시인은 가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친구의 사랑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시인이 친구가 멀어져가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떠난다는 생각은 죽음과 조화되어 있는데 그것은 생명만이 지속되고, 떠나고, 헤어지기 때문이며 죽음에는 종말 만이 있을 뿐 그러한 움직임은 없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다.

이와 같이 3개 quatrain에서 비록 시인이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비개인적이며 보편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3개 quatrain에 대한 자연스런 반응은 상실감의 고조, 나아가서

38) Stephen Booth(1969), *op. cit.*, p. 128.

사랑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삶이 소멸되어 간다는데 대한 슬픔이다. couplet는 이러한 느낌을 합리화하고 있다. 동시에 소멸되어 가는 것에 대한 보다 강한 사랑을 느끼게 한다. 사라져 가는 것을 슬퍼함으로써 그것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역설이다. 내면적 삶의 불은 더욱 밝게 탄다. 따라서 소멸되는 불과 소멸되어가는 것에 대한 사랑의 불은 74에서는 구별되고 있다.

But be contented when that fell arrest
 Without all hail shall carry me away,
 My life hath in this line some interest,
 Which for memorial still with thee shall stay,
 When thou reviewest this, thou dost review
 The very part was consecrate to thee.
 The earth can have but earth, which is his due ;
 My spirit is thine, the better part of me.
 So then thou hast but lost the dregs of life,
 The prey of worms, my body being dead,
 The coward conquest of a wretch's knife,
 Too base of thee to be rememb' red.
 The worth of that is that which it contains,
 And that is this, and this with thee remains.(74)

이것은 시의 개념에 집중해 있는데 73에서 본 바와 같이 강력한 실재를 제시해서 상상적인 개념을 확신시키는 그런 면에서는 훨씬 떨어진다. 시인이 육신은 죽어 “벌레의 제물”이 되어도 영혼은 자기의 시 속에 영원히 남는다는 점을 이 시를 통해서 독자가 확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말하자면 환상을 환상으로서만 인식하게 될 뿐이다. 시인의 영혼이 시 속에서 영원한 것은 상상속의 상황이고 시인의 시는 실제로서 영원히 남는다고 한다면 실제의 시와 환상으로서의 시인의 영혼과 시가 합일되거나 시가 그 영혼을 “포함”하는, 바꿔 말하면 변화하는 것과 영속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상상을 확신하도록 공존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3, 4행에서 “this line”은 “memorial”이 된다. 시가 차츰 진행되어 감에 따라 이 “기념물”은 시인의 정신과 동일시 되어 있다. 자신의 “better part” 즉 그의 “spirit”을 포함하는 시를 짓고자 하는 시인의 욕망은 뚜렷이 드러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시인의 주장이 argument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인데 시인의 “better part”가 그의 살아있는 시 속에 포함되어 있기 보다 인식되어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그 논증을 확신시킬 증거는 없으면서 argument가 지배적

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을 통해 그 논리의 타당성을 확신할 만한 점은 찾을 수 없다. 시인은 그저 아이디어를 전할 따름이다. 육체의 가치는 육체가 “contains”하고 있는 정신이며, 정신은 바로 “this” 즉 시인의 시라고 한다. 그러나 couplet에서 볼 수 있는 이 wordplay에 의해서도 시인의 정신이 그의 시 속에 들어 있다는 논증은 확신을 위한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강렬한 감정적인 표현에 의해서 독자의 확신을 돕지도 않고 있다. 74는 이런 면에서 73 보다는 뒤떨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영존하는 것과 일시적인 것을 상상과 현실에 동시에 인식하고 경험하게 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진 소넷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

III.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carpe diem*이라는 고전적 주제와 신의 섭리라는 중세적 주제는 시간을 다루고 있는 엘리자베스 시를 통하여 나타난 두 주류를 이루고 있다. Spenser의 *The Ruines of Time*은 Petrarch의 *Trionfi*처럼 지상의 왕국이 모두 덧없는 것이라는 중세적 성향을 띄고 있으며 인간이 갈망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무익하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신에게 의지할 뿐이라는 중세의 전통을 그대로 이은 작품이지만 르네상스라는 전환기에 Spenser가 종교와 도덕으로 시간과 죽음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 사상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 것은 시대착오적 유물이라고 까지 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르네상스가 앞선 다른 시대와의 차이점을 어떤 가치관의 배제라기보다는 인간의 문제를 다양한 맥락에서 다룰 수 있는 광범위한 주제 선택이라고 한다면 시간에 관한 보다 더 설득력있는 사상이 점점 표면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의 우의도만 해도 그러하다. 엘리자베스 시대에는 시간은 서로 모순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Father Time은 큰 낫과 모래시계를 가진 노인으로 나타내어 죽음의 위협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젊은이의 모습으로 진리와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한다. 또 시간에 대한 이와같은 새로운 시각은 비단 문학 뿐만은 아니었다. 설교와 교리와 논문등 문학 이외에도 전통적 중세 종교관에서 Calvinism에 이르기까지 시간에 대한 관심은 광범위했다. 특히 16세기 이후 시간에 대한 세속주의가 Montaigne나 Bruno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혁신이었다. Spenser가 새로운 사상을 의식하면서도 전통을 취했다면 Shakespeare는 전통적인 본체론 보다는 그것을 거부한 당시의 불가지론으로 전통에 회의를 느꼈기 때문에 애매한 태도로 전통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Spenser에게 시간과 무상은 매력적인 문제였다. *The Ruines of Time*, *The Shepheardes Calender*, *The Faerie Queene*에서 그는 한결같이 인생의 무상함을

다루었다. 그에게 있어서 시간은 심판자이며 젊음과 아름다움과 인간 사회의 원초적인 완전함을 파괴하는 요소였다.

*Two Cantos of Mutabilitie*에서도 개인에 대한 시간의 지배가 다루어지고, Lucretius나 Bruno의 사상이 언급되지만 그것은 다만 그들을 부정하기 위해서이다. 만물은 시간 앞에 무력한 존재라는 Lucretius의 생각은 신의 영원성이라는 기독교 견해와 상반된다. Bruno는 *Expulsion*에서 우주와 우주속의 생명체는 자율적으로 무상을 발견한다는 자유사상을 피력하고 있지만 Spenser에게 무상의 존재는 영원에 의해서 보상받을 수 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Spenser는 시간을 초월한 신의 섭리를 신봉하고 있다. 시간의 파괴는 보다 더 큰 목적의 일부이며 시간은 영원한 곳에서 초월성을 지니게 된다는 기독교 사상의 전통성을 그는 *The Faerie Queene* 마지막 부분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다.³⁹⁾ 이와같이 Spenser가 시간과 무상의 문제를 추상적인 신학 체계에서 해결하려 했다면 Shakespeare는 이 문제를 그의 소넷에서 인간의 구체적인 경험 속에서 해결하려 했다. Shakespeare는 먼저 인간과 시간을 서로 적대 관계에 놓고 보편성과 개별성의 맥락에서 해결을 시도했다. 이 때의 보편성은 Spenser와 같은 철학적 보편성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미치는 공통스러운 시간 문제라는 뜻이며, 개별성이란 개인에 미치는 일시적인 경험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소넷에 나타나는 경험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추상적인 논리로 체계화할 수 없다는 점이다.

Shakespeare와 Spenser가 시간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를 가진 것은 바로 이 점이다. Spenser에게는 자연은 신의 대행자이며 모든 시간 변화를 초월하기 때문에 무상을 극복한다.⁴⁰⁾ 그러나 Shakespeare의 소넷에는 자연도 시간의 변화에 지배되며 인생의 무상함은 우주의 차원에서 설명되지 않는다. 시간은 모든 것의 결정자이며 시간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개인은 확신해야 한다는 시간관으로 결론지어지고 있다. 126이 소넷을 통하여 나타낸 Shakespeare의 시간관을 모두 요약한 것이라면 종교적 정통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146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Platon적인 146보다는 126에서 지금까지 청년을 다룬 sequence의 일관된 시간에 대한 명상이 매듭지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Shakespeare는 시간을 추상적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146으로 Shakespeare의 시간관을 결정적으로 종교와 철학에 결부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Shakespeare는 거역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인간의 참 뜻을 발견하려고 했지 영원한 신으로 도피하기 위한 불완전한 영역으로서의 시간을 구하지 않았다.

39) Spenser, *FQ*, VIII, ii.

40) *Ibid.*, VII, 58.

Shakespeare의 시간관이 어떤 사상적 배경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Bruno의 영향이 지적되고 있다.⁴¹⁾ 물론 Spenser와의 비교도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Spenser가 *the Garden of Adomis*와 *Two Cantos of Mutabilitie*에서 Bruno의 사상을 원용하고 있으나 그의 목적은 Bruno를 배격하기 위해서이지만 Shakespeare가 시간을 인간 성장의 필요한 매체로 생각하는 점은 Bruno의 사상과 일치하고 있다. Shakespeare 소네트의 중요한 특징은 모든 영역의 경험은 어쩔 수 없이 시간에 묶여 있다는 것이며, 16세기 후반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지적 정서적 긴장이 일시적인 시간에 대한 개인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Sonnets*에 나타난 영원과 변화라는 시간의 이원적 성격을 두고 볼 때 Shakespeare의 안정에 대한 표현은 언제나 변화에 대한 묘사를 거친 연후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는 경험으로서 상실과 쇠퇴를 깨닫고 그것을 객관화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무상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영원이라는 경험을 초월하는 영역을 신뢰하게 한다.

Shakespeare는 이와같이 인간이 끊임 없이 변화하는 시간에 예속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변화하는 세계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 시간 속에 있으면서도 시간에 예속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41) William R. Elton, "Bruno in England", *Quarterly Review*, cxcvi(1902), pp. 500~502.

Abstract

Time in *The Sonnets*—Stability and Mutability

Park Ok—Sun

Time, one of the important subjects of the classical philosophy, becomes the main concerns in the Elizabethan and Jacobean literature, too. Shakespeare like other 16th century poets has much concern about time and expresses it in his sonnets. His thought about time mingles not only the classical Ovidian view and the Medieval Christian view but also the new idea of time which appears in the late English Renaissance.

Spenser's deterministic view on time is from the Medieval tradition, in which as the whole creation on the earth is temporal under the rule of the Providence of God and the eternal God controlled time, man should rely on God to transcend the mutability.

Shakespeare's thought about time is influenced by both the Christian determinism and the worldly view of time of Bruno who understands the relation of the universe and God on the basis of pantheism. To Bruno the Providence of God was the same thing as the fate in a sense and it is explained as a man's experience in time.

When Shakespeare exalts unchanging love above fickle circumstance, he is adhering to a Platonic view, as he is whenever he values the eternal over the temporal. Shakespeare does not, however, simply oppose eternity and time, being and becoming, or constance and variation. Both the sense of movement and the sense of stability can be structural in Shakespeare's sonnets because a tension between them is vital to human experience. Movement-change, flux, time processis experienced by all conscious human beings : absolute stability, by none. A sense of stability is imaginative and is exerted against the sense of movement in some way. The sense of movement is often manacing, because Shakespeare writes of the awareness of the passing away of things loved. One of the paradoxes of his sonnets is that constancy is valued in them insofar as the intensity of a moment convinces us that constancy is present.

